

취업 여성의 '남편'과 일—가족 문제

강이수*

〈국문초록〉

이 연구는 맞벌이 가구의 남편의 존재형태, 역할 책임의 유형, 가사 참여 정도 등을 심층면접 자료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 연구 시기는 산업화 이후 여성의 취업 확대와 성별 분업 규범의 변화 양상에 따라 90년대 이전과 이후 두 시기로 구분하여 변화를 살펴보았다.

전통적 성별분업 규범이 아직 견고하던 90년대 이전, 맞벌이 가구 남편은 생계부양 역할 여부와 상관없이 가정 내에서 권위적인 위치에 있었고, 가사분담의 책임에서도 벗어나 있었다. 또한 하층 맞벌이 가구의 경우 남편의 생계부양 역할은 잦은 이직, 부채 등으로 지속적인 취업을 하고 있는 부인에 비해 불안정한 생계부양자인 경우가 많았다.

90년대 이후 신전통적 성별분업 시기의 남편들은 부인의 취업을 당연시하고 인정하게 되나, 가사분담의 양상은 여전히 불균등하다. 취업 여성들은 남편에 대해 공평한 가사분담을 요구하기 보다는 부모의 지원을 통해 가사노동을 대체하거나 최소화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전 시기 취약한 생계부양 역할을 해도 가정 내 남편의 권위가 유지되었다면, 90년대 이후에는 훨씬 불안정해지고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 즉, 가정 내 성별분업의 불평등한 관계의 지속과 남성 부양자 권위의 흔들림과 균열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주제어: 맞벌이 가구, 생계부양 역할, 신전통적 성별분업, 가사노동 분담, 일-가족 갈등

* 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yskang@sangji.ac.kr

『젠더와 문화』 제4권 1호(2011) pp. 43-87

© 2011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1. 머리말

서구 사회는 물론 우리 사회에서도 여성 취업의 증대, 맞벌이 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일-가족 갈등의 문제가 사회 전반에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가족 양립을 위한 돌봄과 양육의 사회적 지원 체계, 여성의 이중부담 완화를 위한 여성친화적 정책 등 다양한 연구와 정책 제언이 이어지고 있다(강이수 외, 2009; 장지연 외, 2005). 또한 일-가족 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구성원 전체의 문제이며, 특히 맞벌이를 하는 아내와 남편 공동의 문제라는 인식에 따라 최근에는 기존의 남성 1인 생계부양자 모델에서 벗어나 이중 소득자 모델로의 전환을 위한 사회정책과 실천이 중요하다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Sainsbury, 1999).

이에 따라 맞벌이 가구의 가사분담의 현실, 일-가족 갈등의 양상, 공평성의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 같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가사분담자로서의 남편 역할이 변하지 않고 있으며, 극히 미미하다는 점이다. 즉, 20세기 여성 역할의 극적 변화가 진행되기는 했지만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이 이제까지 여성이 책임 맡고 있던 가사역할의 재조정(re-negotiation)을 가져오지는 못했으며(Jenkins, 2004: 1), 이에 따라 ‘빠르게 변하는 여성과 느리게 변하는 남성’ 간의 긴장 혹은 ‘지연된 혁명’(Hochschild, 1997)이라는 남성의 변화지체 현상으로 여전히 불평등한 젠더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맞벌이 가구의 가사분담에 대한 연구들은 우리나라 남성들이 서구의 남성에게 비해 얼마나 가사분담에 참여하지 않는지를 계량적 수치로 보여준다. 한국 남성들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 참여시간은

조사에 따라 38분 또는 42분 정도로 지난 산업화 기간 동안 큰 변화가 없다(마경희, 2008). 남편의 존재는 돌봄과 가사와 관계하여 그림자와 같은 존재이고, 더욱이 이같은 남편의 불공평한 역할에 대한 취업여성의 불만도 가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 편이다(김혜경, 2009: 164). 즉, 한국 사회에서 맞벌이 가구의 증대와 그에 따른 가사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젠더 평등의 구축은 아직 요원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맞벌이 가구의 남편에 초점을 맞추어 남편의 생계부양 역할 책임의 유형, 가사 참여 정도 등을 심층면접 자료를 통해 변화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남성 생계부양자 가족'이 실제적·이념적으로 지배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기혼여성 취업자의 증가에 따라 맞벌이 가구, 즉 '2인 생계부양자 가구'로의 전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윤홍식·조막래, 2007). 2인 생계부양자 가구로의 전화는 한편으로는 일-가족 갈등의 증폭으로 인한 사회적 지원 체계에 대한 확립을 요구하는 계기이기도 하고, 가족 내 관계에서는 상대적으로 평등한 성별관계의 구축이 가능한 가구 모형이라는 기대를 동시에 촉발하고 있다.

따라서 맞벌이 가구의 '남편'에 대한 탐구는 가족 내 성별관계와 젠더 평등의 가능성을 탐색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활용하는 자료는 취업여성이 말하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들이다. '더디게 변하는' 혹은 '거의 변함이 없는' 남성들 자신의 이야기보다는 급변하는 사회 상황 속에서 일-가족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취업여성들이 '남편'에 대해 어떤 기대와 평가를 하고 있으며, 또한 어떤 갈등과 문제를 경험해 왔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60년대 이후 취업 경험이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맞벌이 가구의 생계부양 역할 공유 상황, 가사분담 유형과 특징을 중심으로 성별관계의 특성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고, 아울러 기혼여성의 취업이 확산되고 보편화되는 시기인 90년대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이상과 같은 특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탐구하게 될 것이다.

2. 일-가족문제와 가족 내 성별관계

1) 일-가족 문제의 지형 변화와 '남성'

산업화에 따라 여성의 취업이 증대하면서 여성이 직면한 일-가족 문제의 맥락도 변화하고 있다. 자본주의적 산업화 이후 일터와 가정이 공간적으로 분리되면서 일과 가족의 영역은 분화, 갈등하는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자본주의 성장과 함께 일과 가족 영역 관계에서 기업과 공장은 삶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고 가족은 기업조직의 요구에 봉사하는 기관으로 재배치되는 일 중심적 사회조직으로의 재편이 이루어졌다. 즉, 공장의 시간이 가족의 시간을 규정해가는 사회변화가 진행된 것이다(Hareven, 1982).

전형적으로 남성을 중심으로 한 이상적 노동자 규범과 가정중심성 이데올로기의 강화로 특징지어지는 이와 같은 일중심적 사회조직은 가족과 여성의 삶에 긴장과 스트레스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상적 노동자 규범이란 풀타임노동과 초과노동을 수행하며 출산이나 양육에 대한 책임을 갖지 않는 노동자를 이상적 노동자로 보는 것이다. 시장 노동은 이상적 노동자를 기준으로 조직화되었고, 여성 노동은 주변화

되고 여성의 이상적 역할은 가정에 있다는 가정중심성 이데올로기가 강화되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남성=생계부양자, 여성=가사담당자라는 전형적인 성별분업이 형성된 뒤로 20세기 중반까지 '남성부양자 모델'은 공고한 위치를 유지하고 있었다(Gluksmann, 1995: 71).

서구사회에서 '남성 부양자 모델'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 기혼여성의 취업이 크게 증가하면서이다. 특히 어린이가 있는 기혼여성의 취업도 크게 증가하면서 '남성 1인 생계부양자 모델'에 근거한 일과 가족의 관계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한다(Crompton et al., 2007: 4). 일과 가족의 이중부담에 직면한 여성들은 기업과 국가에 대해 이중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요구하거나, 개인적으로 가사를 대체할 인력을 고용하거나 결혼과 출산을 지연, 회피하는 등 가족의 요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일-가족 문제에 대응해왔다. 그러나 여성의 취업 증대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직면한 일-가족 문제의 갈등과 부담 그리고 불평등한 젠더관계가 지속되면서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의 변화는 여성은 물론 남성과 함께 할 수 있는 일-가족 문제의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60-80년대 성별 혁명이 진행되면서 남성은 생계부양자, 여성은 가사담당자라는 전통적 성별분업에 대한 인식, 태도, 현실이 달라지고 있으며, 객관적 현실로 볼 때도 이 같은 분업에 기초한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은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전형적인 남성 생계부양자 가구는 3분의 1정도이며, 맞벌이 가구는 더욱 더 증가하는 추세이다. 거슨(Gerson)은 달라진 상황 속에서 여성과 남성의 대처전략이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통적 성별분업에서 '신전통적(neotraditional)' 성별분업으로의 변화

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Gerson, 2010). 아울러 조안 윌리엄스는 20세기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변형된 가정중심성 이데올로기’, 즉 여성의 취업은 당연한 일로 광범위하게 수용하면서 가정영역에서의 일과 책임은 여전히 여성의 몫으로 남겨두는 이데올로기가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한다(Williams, 2000).

거슨은 미국의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일-가족 갈등 증대와 불확실한 미래와 변화에 대한 남녀의 상이한 대처전략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우선 여성의 경우 자립적(self-reliant) 여성과 가정중심적 여성 집단으로 나뉘고, 남성의 경우 자율적인(autonomous) 남성과 신전통적인(neotraditional) 남성 집단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이 같은 남녀의 상이한 대처전략이 드러나는 시기를 전통적 성별분업 시기와 대비하여 신전통적 성별분업 시기로 상정하고 있다.

신전통주의적 성별분업이 형성되는 시기 변화에 대처하는 남녀의 동기와 전략의 성격은 매우 다른데 여성의 경우 자립적 전략을 택하는 경우가 지배적이며, 남성의 경우에는 신전통적인 전략을 택하는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자립적 여성이란 결혼이 더 이상 영속적이지 않다는 점, 그리고 불평등한 결혼의 압력이 자신들의 독립적인 자아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제한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결혼을 지연하거나, 받아들일 만한 파트너에 대한 기준을 상향시키는 집단이다.¹⁾ 이에 비해 신전통적인 전략을 택한 남성 집

1) 자율적인 남성들은 자신이 다른 성인의 부양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에 부담을 느끼며, 전형적인 부양자-가사담당자 윤리를 거부하는 속성을 보인다. 그러나 자립적 여성이 개인적 정체성과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이들은 독신을 택하는 등의 전략을 통해 전통적인 결혼의 부담과 재정적 책임의 위협에서 분리되려고 한다.

단은 자신들의 부양자 역할의 중요성과 책임을 인식하면서 동시에 여성의 취업을 인정하고 권장하는 속성을 보인다. 그리고 이념상으로는 가사의 동등한 분담이나 자녀양육에 대한 남성의 역할을 수용하면서 일-가족 균형이라는 이상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남성에게 비해 여성의 취업이 보다 유동적이기를 바라며, 파트너가 자신을 지원해줄 것에 대한 기대도 갖고 있다. 자녀가 생길 경우 자신보다는 아내가 일을 조절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면서 남녀 간에는 '평등하나 다른(equal but different)' 형태의 역할 부담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즉, 평등에 대한 이들의 생각은 상당히 조작적이고 가변적이다. 따라서 자신들은 실제로는 하지 못하고 있지만 평등을 다 수용하고 있다고 간주하고 있어 이들에게 평등은 일종의 '마음의 상태(state of mind)'로 남아있다고 지적한다(Gerson, 2010).

즉, 전통적 성별분업이 도전받고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이 흔들리고 있으나, 가족 내 성별관계에 대한 젊은 세대의 대처전략도 여전히 평등한 젠더 관계의 구축과는 거리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남성들은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규범을 수용할 준비를 하고 있으나, 부양자로서의 자기 역할을 남성 정체성의 중심에 두고 있으며 (Seccombe, 1986; Meisenbach, 2010), 따라서 젠더 혁명은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혁명'으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서 맞벌이 가구의 남성들은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을까?

2) 맞벌이 가구와 가족 내 성별관계

한국 사회에서 1960년대 산업화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양상은 크게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일-가족 문제의 맥락도 변화하

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중반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크게 증가하면서 여성이 직면한 일-가족 갈등과 이중부담도 보다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강이수, 2009).

맞벌이 가구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데,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05년 현재 가구주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1,031만 5,000가구 중 남편만 일을 하는 남성 부양자 가구는 46.3%로 1995년 55.6%에 비해 약 10% 감소했다. 이에 비해 맞벌이 가구는 큰 폭은 아니지만 1995년 33.4%에서 2005년 35.2%로 증가했고, 부인만 일하는 가구는 2.3%에서 4.0%로 증가했다고 한다(통계청, 2005).²⁾ 물론 맞벌이 가구의 등장은 최근의 현상은 아니다. 산업화 초기부터 맞벌이 가구는 존재하였고, 특히 농업 중심이었던 1960년대 농촌가족의 경우 기본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함께 일하는 맞벌이 가구였다. 변화하는 것은 맞벌이 가구의 양적 증대라는 측면보다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으로 재편되고, 일터와 가정의 공간 분화가 진전됨에 따라 취업을 선택하는 여성의 경우 일과 가족의 갈등이 전면화되는 취업환경의 질적 변화가 진행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강이수, 2009). 즉 우리의 경우 80년대 중반에 시작하여 90년대를 넘어서면서 맞벌이 가구가 직면한 일-가족 문제의 지형과 맥락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도시 지역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취업하는 기혼 여성이 크게 증가하였고, 하층 여성뿐만 아니라 고학력 중산층 여성들도 본격적으로 취업 시장에 참여하게 되면서 맞벌이 가구의 구성과

2) 손문금(2005)이 통계청의 『경제활동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1990년부터 2002년까지 가구주의 혼인 상태와 경제활동 유형을 분석하여 추정한 결과는 전체 가구 중 유배우 가구이면서 맞벌이 부부인 경우의 비율이 대략 전체 가구의 35% 내외로서 1990년 36.5%, 2000년 33.5%, 2002년 33.1%로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손문금, 2005: 56).

계층적 양태도 크게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맞벌이 가구는 직업 계층, 경제적 상황에 따라 그 유형을 분리해 볼 수 있다. 우선 맞벌이 가구는 부부가 모두 좋은 직업을 가진 경력추구형 맞벌이(dual-career) 가구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취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생계형 맞벌이(dual-income)가구로 구분할 수 있다 (Falkenberg and Monachello, 1990). 경력추구형 맞벌이 가구와 생계추구형 맞벌이 가구 모두 여성이 남편에 비해 더 많은 역할부담과 갈등을 경험하지만, 직업의 미래전망에 대한 가치부여의 차이로 인해 그 경험은 동일하지 않다. 경력추구형 맞벌이 가구 여성의 역할부담과 갈등이 유급노동에 대한 몰입의 장애로 인한 것이라면, 생계추구형 맞벌이 가구 여성은 자신의 취업을 '일시적인 것'으로 보면서 전업주부로서의 가족 내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역할부담과 갈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생계형 맞벌이 가구의 남편은 경력추구형 가구에 비해 가사분담을 덜 하는데 이는 여성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게 된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맞벌이 가구의 유형에 따른 가사분담 참여 정도를 분석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최근 연구를 보면 맞벌이 여성은 근로시간 외에 하루 평균 3시간 27분의 가사노동을 하는데, 맞벌이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42분에 불과하다. 또한 2007년 한 조사 연구에서도 하루 평균 가사노동 시간은 부인 2.7시간 남편은 0.63시간(약 38분)으로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은 부인 가사노동 시간의 18.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가사노동이 부인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경희, 2009: 233).

사실상 남편들은 거의 가사노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나마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남편들의 실태도 그 특성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조성은(1998)은 가사노동과 관련하여 남성들을 거부형(42%), 회피형(25%), 불가피형(20%), 참여형(13%)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가사노동 거부형은 가사노동을 ‘여성의 일’로 보고 남편들이 분담을 거부하고, 아내 역시 남편의 역할에 대해 체념과 포기를 한 유형이다. 가사노동 회피형은 아내가 요구하나 핑계를 대고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상태이다. 가사노동 불가피형은 아내의 강력한 요구 때문에 참여하기는 하지만 내면으로부터의 필요성에 따른 순응이 아니므로 부부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가사노동 참여형은 새로운 인식을 갖추고 있고 가사분담을 하는 경우지만, 서로 미루거나 표준에 맞추는 어려움이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는 유형이라고 한다(안상수 외, 2009: 35).

맞벌이 가구의 존재형태는 부부의 직업적 지위나 계층 상태에 따라 다양하고, 또한 부부간 역할분배 방식이나 가사노동 분담 유형에서도 차이가 많다. 따라서 취업여성의 ‘남편’에 대한 분석에서도 이 같은 계층 상태나 부부간 역할 분배, 가사노동 분담 방식을 고려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맞벌이 가구의 일-가족 갈등은 가사노동의 일차적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사회 전반의 구조적·제도적·규범적 기제가 여전히 완고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남성의 가사, 양육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회전반의 시스템 변화를 세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마경희, 2009: 361).

3.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1) 연구방법 및 자료: 구술면접 자료, 신문기사

연구방법은 심층인터뷰 자료를 통한 질적 분석이며, 사례는 1960년대 이후 취업한 여성을 인터뷰 대상으로 한다. 이 연구는 2006년 상지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에서 학술진흥재단의 프로젝트를 받아 “산업화 이후 일-가족 영역 관계의 변화와 여성의 노동경험”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심층면접 자료를 활용하였다. 전체 심층면접 자료는 29사례였으나 심층면접 과정 중에서 대부분의 취업여성은 ‘남편’에 대한 언급을 극도로 신경 쓰고 조심하거나 대답을 회피하는 성향을 보여 ‘남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사례를 제외하고 21사례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³⁾ 구술면접은 2006년 3월부터 6월 중순까지 진행되었다.

심층면접은 기본적으로 취업여성의 일-가족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1-2회에 걸쳐 장시간 면접을 하였고, ‘남편’에 대한 질문을 중심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자유로운 생애구술 방식으로 비구조화된 면접이었으나, 연구에 필요한 항목들을 준비하여 면접조사자들이 연구에 필요한 항목을 보조적으로 질문하였다. 이 연구에 사용된 배우자 ‘남편’에 대한 질문 항목들은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3) 박기남은 전문직 여성에 대한 조사에서 1980년대 전문직 여성의 양육과 관련한 생애구술에는 남편, 아버지 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는 특징을 보인다고 지적한다(박기남, 2009: 198).

배우자에 대한 질문 항목

- 남편과는 다정한 편이셨나요?
- 남편께서는 부인이 일하는 것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 남편분은 평소 가족이나 여성의 역할(살림은 여성의 몫)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진 분이십니까?
- 본인이 늦는 날 저녁식사나 아이돌보기는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 남편분께서는 집안일을 얼마나 도와주었습니까? 평일과 주말에 어떤 종류의 집안일을 어느 정도(시간) 했습니까?
- 남편의 가사, 양육참여가 본인의 기대에 부응했나요?
- 남편의 출퇴근 시간은 어떠했습니까?
- 집안일로 부부간 갈등이 있을 때 주로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 남편과 아이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 남편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 배우자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가족의 삶에서 남편이 기여한 바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남편이 얼마나 가족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즉 부부간의 관계, 역할유형, 가사분담, 배우자에 대한 평가 등이 면접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보조적인 질문을 준비하고 실행하였다. 취업 여성들은 자신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편은 아니었으며, 일부 여성들은 상당히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사례마다 2회 정도의 깊이 있는 면접을 통해 취업여성들의 남편의 일반적인 존재형태와 특징 그리고 생계부양자 역할, 가사분담 등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

2) 면접사례의 특성

이 연구의 분석대상이 된 사례는 모두 21사례이다. 면접 대상자들은 60년 이후 한국의 산업화 과정을 세 시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로 대표적인 여성 직종에 취업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나(강이수, 2009), 이 연구에서는 이 같은 의미보다는 우리 사회에서 전통적인 성별분업 담론 및 이데올로기의 변화가 진행되는 시점을 중심으로 면접 대상자의 사례를 구분하고자 한다. 구술면접 사례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 I 시기 (90년대 이전) 사례 참여자 특성

사례번호 (가명)	본인직업	나이	남편직업	자녀수	양육해결방식	비고
1-1(박정희)	미용사	68	자영업(화장품대리점)	2남	혼자해결	사별
1-2(이명자)	농업	60	농업	2남1녀	시부모 도움	
1-3(강요원)	가족계획요원	71	교사	2남1녀	친척, 식모	
1-4(장영옥)	판매직	54	공무원	2남	시부모	
1-5(오정자)	보험설계사	59	자영업	1남1녀	이웃	
1-6(이명신)	생산직	52	막노동	1남2녀	혼자 해결	사별
1-7(정영희)	생산직	58	생산직	1남2녀	친정어머니	
1-8(최정임)	판매직	71	막노동	3남	이웃	사별
1-9(김형주)	은행원	52	대기업사원	1남2녀	친정, 시어머니	
1-10(박순희)	속기사	47	자영업	2녀	친정어머니	
1-11(김영희)	기자	46	연극인(교수)	1녀	친정식구	
1-12(김서연)	간호장교	52	직업군인	2남	친정, 시어머니	

<표 2> II 시기 (90년대 이후) 사례 참여자 특성

사례번호 (가명)	본인직업	나이	남편직업	자녀수	양육해결방식	비고
2-1(함명희)	방송작가	32	방송국PD	2남	친정, 친척	
2-2(오선희)	학습지교사	36	회사원	1남1녀	시어머니	
2-3(이성호)	관리직	38	회사원	2남	친정어머니	
2-4(남연주)	연구원	39	금융연구원	1녀	친정어머니	
2-5(최미희)	치과의사	41	치과의사	1남1녀	입주가정부	이혼
2-6(이진서)	텔레마케터	38	자영업	1남1녀	친정어머니	
2-7(장영애)	식당종사자	54	무직	1남1녀	시댁	사별
2-8(김정미)	판매직	54	자영업	1남	친정, 시댁	이혼
2-9(정성희)	IT 관리직	37	회사원	2녀	친정어머니	

서구에서는 대략 20세기 후반부가 되면 전통적인 성별 분업이 변화하고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의 쇠퇴가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 (Crompton, et al., 1999; Gerson, 2010). 우리 사회의 경우 80년대 중반 이후 기혼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이와 같은 변화가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어느 정도 사회적인 영향력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시점을 90년대로 보아 90년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보고자 한다. 즉 90년대 이전은 전통적인 성별분업이 지배적이고 견고한 시기라면 90년대 이후 이같은 전통적인 성별분업에 대한 수정과 변형이 일어나는 시기로 구분하여 신전통적 성별분업 시기로 구분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술면접은 기본적으로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면접대상자의 연령보다는 면접대상자가 주로 취업활동을 하였던 시

기를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이같은 시기구분에 기초할 때 분석 사례는 90년대 이전 12사례, 90년대 이후 9사례이다.

4. 전통적 성별분업 시기 취업여성의 '남편'

1) 취업여성과 남편의 생계부양 역할

전통적 성별분업 이데올로기가 아직 견고한 90년 이전의 맞벌이 가구를 중심으로 남편과 아내의 생계부양 역할과 책임의 양상은 어떠한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일반적으로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이란 남성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여성은 취업을 한다고 해도 보조적인 수입원이다. 따라서 가족 내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 분업이 분명하게 유지되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분석대상 사례를 앞서 펠켄버그와 모나첼로의 분류대로 구분해보자면 1-1, 1-2, 1-4, 1-6, 1-7, 1-8 사례는 생계형 맞벌이 가구, 1-3, 1-5, 1-9, 1-10, 1-11 사례는 경력형 맞벌이 가구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분류를 하고 각 집단 유형에 따른 남성의 생계부양 역할을 분석해 보면 생계형 맞벌이 가구의 경우 남성 부양자 역할이 매우 불안정하고 취약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1) 누가 생계부양자인가: 생계를 책임지지 않는 남편들

생계형 맞벌이 가구의 남편들은 단지 직업지위가 낮은데서 오는 생계부양의 취약성뿐만 아니라, 잦은 사업 실패 그리고 질병 등으로

실제로는 생계부양자라기 보다는 생계를 아내에게 의존하는 양상을 보인다.

사례 1-1의 경우 아내는 결혼 전부터 어려운 집안 때문에 기술을 배워 가장 역할을 했으며, ‘남존여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자립’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공부보다는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결혼 후에도 미용실을 운영하며 계속 일을 한 경우이다. 그런데 남편은 처음에는 미용실 옆에서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기도 하였으나, 연이은 사업 도전과 실패로 가게를 어렵게 만드는 존재였다.

“애들 아버지가 아 그렇게 알뜰하게 모아놓은 돈을 사업한다고 돈을 다… 갖다가 몇 번이나 그렇게 쓰고… 그 사업한다고 해가지고는… 나가 머는… 가지고 나간 돈의 열 배가 넘는 빚을 안고와요. (중략) 이제 애들 아빠가 돈 모아놓으면 갖다 사업한다고 날려버리고… 빚을 산더미처럼 모아오고 또 그거 겨우 갚고 나면 또 사업한다고 나가서 돈 다 까발리고 빚을 안고 들어오고…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래서 수면제를 먹으면서 잠을 자고… 그래도 우리 엄마가 날 지켜줬던 것처럼… 나도 내 자식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살았어요.” (사례 1-1)

사업에 나서게 된 동기는 부양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겠지만 사례 1-1의 남편은 한 번도 안정적인 생계 부양자가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부인이 병에 걸렸을 때는 다른 여성과 ‘결혼질’을 하기도 하다가, 나이가 들어 간경화로 세상을 떠났다. 남편에 대한 부인의 기억은 돈을 다 내다버리고, 아직까지도 ‘미움’을 지울 수 없는 존재로만 남아있었다.

“돈도 몇 번씩이나 갖다 버렸죠… 내가 병들어 있는데… 결혼질을 한 게

인제는 정말 싫다 정말 싫다. 그런데 내가 왜 이혼을 못했느냐 하면… 아 빠가 없는 애들 만들기 싫었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심년을 용서를 못 했어요. 제사 다 지내주면서도…” (사례 1-1)

사례 1-2의 경우에도 제법 농사를 많이 짓는 부농이라고 해서 서울에서 미싱사를 하다가 중매로 농사를 짓는 남편과 결혼하였는데, 대식구인 시댁 가족과 논 2마지기가 전부인 생활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 여성은 살기가 너무 어려워 도망 가보기도 했으나, 결국에는 병든 남편의 병수발을 하며 기구하게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한탄하였다.

“살기가 너무 팍팍하드라고 사는 것이. 우리 딸 낳아놓고 도망도 두 번 가다 붙잡히고, 아저씨한테 ‘서울에서 애인 있었으께 안 살라고 그렇게 도망간다’고 억지소리도 많이 듣고, 그래갖고 기구하게 살았지.” (사례 1-2)

사례 1-6의 경우에도 남편의 시골집이 부자라고 해서 결혼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집의 장남이었고, 남편은 결혼 한 직후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있다가, 다시 일을 하다 회사가 부도나자 다시 쉬다 건축 막노동을 하는 등 불안정한 취업을 반복하였다. 사례 1-7 역시 가난한 남편을 만나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남편이 건강이 안 좋아 집에 있고, 자신이 나가서 취업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례 1-8의 경우는 남편이 결혼 초에 무직이었다가 공사판 막노동을 했으며, 술과 가정폭력이 심한 경우였다. 생활이 너무 어려워져서 부인은 할 수 없이 일을 찾아 나선 경우이다.

“애기 아빠가 거시기했어. 애기 아빠가 노가다를 했는데 술로만 다 드시고 돈을 안 갖다줘. 절대 안 갖다 줘. 친구들하고 술로 다 먹어뵈고 절대 돈을 안갖다 줘.” (사례 1-8)

거기애다가 가정폭력도 심했고, 결국에는 술병으로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났다.

“힘들고, 살림살이들 다 던져놓고 그냥 난리를 쳐. 사람 두들기고 그냥 아주, 얼마나 거시기했다고. 오죽하면 주인집 아주마가 ‘살지말고 서울로 어데로 식모살이를 가라’고 해도 못 나가. 큰 아들이 세 살 먹은 때인디 그거 띠어놓고 못 나간다니까… (중략) 궁계로 아주 지긋지긋해 영감 죽었어도 생각이 안나. 어떻게 매손질을 하고 때려싼가 아주 죄없이 맞았어.” (사례 1-8)

이 연구에 사용된 면접사례가 취업여성의 노동경험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고 따라서 시기별로 대표적인 여성직업에 취업하고 있던 여성들을 무작위로 만나 이루어졌다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이들 취업여성의 ‘남편’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은 의외이다. 즉, 하층의 생계형 맞벌이 가구라고 할 수 있는 이들 사례에서 공통적인 것은 남편의 경우 안정적인 생계부양자 역할자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부인이 취업생활을 지속적으로 이어간 것에 비해 남편들의 취업은 불안정하고, 부인이 벌어놓은 돈으로 사업에 도전했다 실패하고 혹은 질병에 걸려 취업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다. 거기애다가 술과 도박, 폭력의 문제가 더해진 경우도 있어, 과연 이들 맞벌이 가구에서 누가 부양자였는지는 다시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

(2) 권위적인 생계부양자: 경력추구형 맞벌이 가구

그러면 앞서의 하층 맞벌이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

업지위에 있던 경력추구형에 속하는 맞벌이 가구에서 '남편'의 생계 부양 역할은 어떠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대부분의 사례에서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앞의 사례들에 비해 남편의 취업생활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부인들의 직업도 보험설계사, 은행원, 기자, 간호장교 등 안정적인 사례들이다.

우선 사례 1-3의 경우 부인은 가족계획요원이고 남편은 초등학교 교사였다. 남편은 결혼 당시에는 직업이 없었고, 부인이 작은 면에 가족계획요원으로 일하게 되자 자신도 같은 곳에서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시작한 경우이다. 남편은 부인 때문에 다른 좋은 곳에 가서 중고등학교 교사가 되지 못했다고 속상해 하면서 술과 화투로 일상을 지냈다.

“(남편은) 술을 마시고 며칠씩 학교 숙직실에서 동료 교사들과 어울려 집에 안 들어오기도 하고, 화투도 했어. 그리고 폭력도 좀 했고, 폭언도 하고 고함도 많이 질렀어. 봉급을 가져오긴 했지만 술과 화투 때문에 다 채우질 못한 적이 많아.” (사례 1-3)

그런데 사례 1-3의 경우는 면접 내내 남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인터뷰 후에는 남편이 알면 난리난다고 이야기를 빼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우리 남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때는 남자들이 다 그랬다. 다들 술 많이 먹고 그랬다.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술이 문제다.”라고 하면서 남편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신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강한 만족과 자부심을 나타냈는데,

“농사일, 집안일, 직장일 중에서 직장일이 제일 좋다. 농사일은 힘들다. 집

안에만 있으면 스트레스 풀 데가 없다. 직장일이 제일 좋다. 난 직장일이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한결같이 다녔다.” (사례 1-3)

결국 이 경우에도 부인은 한결같이 일하면서 가족의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일하는 부인에 대한 남편의 태도는 수용보다는 비난과 거부의 정서를 더 많이 보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사례 1-4의 경우는 남편은 공무원이지만 박봉이고, 시댁 식구 전체를 부양하면서 취업을 지속하게 된 경우이다. 결혼하기 전부터 돈을 벌겠다는 욕구가 강했던 면접 사례자는 서울에서 포목상에 취업해서 일을 하였고, 결혼 후에도 계속 일을 하였다.

“공무원 월급이 정말 적더라고요… 내가 내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제가 버는 월급은 조금도 집안애다 안 쓰고, 인제 남편이 벌어오는 걸로 생활을 했는데, 너무 어렵게 했죠. 남편 월급은 적지 도저히 생활할 수가 없더라고요. (대식구가 살기에 어려워 자주 싸움을 하게 됨)”
(사례 1-4)

남편의 월급이 적기는 하지만 자신이 번 돈을 악착같이 저금해 경제적 안정 기반을 마련하려고 했던 이 사례 여성의 경우에는 시댁 식구 부양과 부족한 생활비 때문에 남편과 종종 싸움을 하였고, 맞아서 입원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사례 1-4의 남편은 시댁 식구를 모시고 산다는 점 때문에 자신이 할 말을 못하고 아내에게 죽어서 산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다고 한다.

“저희 남편이 그 친구한테 무슨 얘길 살짝 하는데 제가 들었는데, 정-말

제가 죽어서 산다고 그러더라구요. 왜 그러냐고 친구가 물으니까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내가 큰 소릴 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우리 마누라한테 아주 죽어서 산다. 인제 그런 애길 한 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냥 그, 효자예요.” (사례 1-4)

부인을 폭행해서 입원시킬 정도의 상황이었지만, 남편은 자신이 부인에게 꿈쩍 못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부족한 부양자 역할과 부인에 대한 폭력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효자로 남아있다.

사례 1-10의 경우 아내는 속기사였고 직업의식이 투철한 편으로 결혼할 당시 ‘자신에게 아내 노릇, 어머니 노릇, 며느리 노릇을 요구하지 말라’ 라는 조건을 달아 결혼하였다고 한다. 남편은 자영업이라고 하기에는 민망한 조그만 가게를 했다고 하며, 이 사례의 남편 역시 계속 사업에 도전하고 실패하는 경험을 하였다고 한다.

“결혼할 때 (남편은) 사업을 했었어요 그때 한참 유행하던거 그거 뭐라 그러나 그 외국에서 물건 들여다가 하는거 파는거 있잖아요... 예 오판상 그걸루 몇 번 망했어요... 처음 결혼할 땐 그거예요. (중략) 지금은 자영업예요. 직장은 아니고 가게... 조그만 가게” (사례 1-10)

결혼할 때부터 조건을 달 정도로 발언권이 있는 사례였지만, 안정적인 생계책임에 아내의 역할이 중요했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사례 1-11은 아내가 기자, 남편은 예술인이고 최근에 교수가 된 경우로 비교적 안정된 경력추구형 맞벌이 가구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남편의 수입구조는 불규칙하고, 아내하고 서로의 수입을 공개하지도 않는 경우이다.

“그냥 우리 남편이 이제 또 지금은 어느 학교의 교수로 왔는데 이제 한

4년 됐다. 그전까지는 결혼해서 한 11년 동안 한번도 저한테 월급을 가져온 일이 없어요. ... 작품료를 조금 받을 때는 다 저한테 받치고 조금씩 얻어가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돈을 이제 조금씩만 주더라고요. 약간의 불만을 가지면서도 그냥 그냥 지내다가 이제 월급을 받기 시작하면서 고정적으로 얼마를 받지요. 그래서 저쪽이 얼마를 받는지 지금도 몰라요, 저는. 근데 저쪽도 제가 보너스를 받는지 연봉을 받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사례 1-11)

남편은 일상에 대한 관심이 없고 부인의 표현에 의하면 ‘거대담론’만 말하고, ‘매날 우리 민족의 나아갈 길’ 이런 얘기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윤봉길 의사같은 타입이라고 한다. 역시 이 사례에서도 부인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원을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례 1-12는 부인은 간호장교, 남편은 직업군인으로 생계를 위한 수입구조에서 거의 절반 정도의 책임을 지고 있었고 또한 평생 취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쪽 다 안정적인 수입구조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례이다. 이 사례의 경우에는 생계부양을 둘러싼 역할 갈등보다는 맞벌이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부인에게 전통적인 성별분업의 역할을 요구한데서 오는 갈등이 더 많았던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위의 사례를 볼 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중상층 맞벌이 가구에서도 안정적인 생계부양 역할을 누가 했느냐고 질문을 해보면 남편과 아내의 공동부양이라고 답하기에는 어려운 사례들이 더 많이 있다. 부인이 취업활동을 하고 소득이 있다는 것에 기대어 남편의 소득은 시택으로 보내지거나 사업에 도전하여 실패하거나 불규칙하게 취업하는 사례가 많아 남편의 생계부양역할 비중이 부인에 비해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2) 가사 분담 유형과 특징: 가사분담은 없다

그렇다면 전통적 성별분업의 규범과 담론이 지배적이었던 이 시기에 위의 맞벌이 가구 내 성별분업과 가사분담 유형은 어떠했을까? 우선 전체적인 사례에서 나타난 남편의 가사노동참여 유형과 참여정도, 그리고 분담내용을 앞서 조성은(1998)의 분류에 따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 시기 맞벌이 가구 남편의 가사참여 유형

사례	본인직업	남편 직업	양육해결 방식	가사참여 유형	참여정도	분담 내용
1-1	미용사	자영업	혼자해결	거부형	전혀안함	-
1-2	농업	농업	시부모 도움	거부형	전혀안함	-
1-3	가족계획 요원	교사	친척, 식모	거부형	전혀안함	-
1-4	판매직	공무원	시부모	회피형	조금참여	자녀 돌봄
1-5	보험설계사	자영업	이웃	거부형	전혀안함	-
1-6	생산직	막노동	혼자 해결	불가피형	많이참여	청소, 살림
1-7	생산직	생산직	친정어머니	불가피형	부분참여	청소, 빨래
1-8	판매직 (답장사)	막노동	이웃	거부형	전혀안함	-
1-9	은행원	대기업 사원	친정, 시어머니	회피형	조금참여	자녀 돌봄
1-10	속기사	자영업	친정어머니	거부형	전혀안함	-
1-11	기자	연극인 (교수)	친정식구	회피형	조금참여	자녀 돌봄
1-12	간호장교	직업 군인	친정, 시어머니	거부형	전혀안함	-

우선 취업 여성 사례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자녀양육을 위해 친정이나 시댁과 함께 살거나 친족, 이웃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실제 우리나라 취업여성은 광범위한 친족체계 속에서 취업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현실의 증거이기도 하다(김혜경, 2009). 따라서 가사분담 문제가 실제로 맞벌이 부부의 핵심적인 갈등요인으로 부각되지는 않았다. 여성들은 남편에게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았고, 남편은 하지 않는게 당연한 전통적인 성별분업이 굳건한 사회적 분위기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도 남편이 가사활동에 조금이라도 참여한 영역이 있다면 자녀를 돌보거나 함께 놀아주는 정도였다. 그런데 위의 사례 중에서 다소 예외적으로 가사에 많이 참여한 경우는 두 사례인데 이 경우는 남편이 질병으로 집에 머물게 되면서 불가피하게 가사를 담당하게 된 경우이다.

사례 1-6 취업여성의 남편은 건축 막노동을 하다가 회사가 부도가 나서 일을 못하게 되고 얼마 안 가 남편이 위암에 걸리게 된 불행한 사례였다. 남편은 집에서 생활비도 관리하고 청소, 빨래도 다했으며, 부인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였다.

“제가 월급타면 얼마 얼마... 애기 아빠가 아파 집에 있으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 월급 타 다 썼어요. 남편이 건강이 안 좋아지고는 생활비 관리를 전부 했어요..... (중략) (살림도) 너무 잘 했어요. 우리 애 아빠가 이불도 못 개게 했어요. 나한테. 자기가 다 개서 놔야돼.....” (사례 1-6)

부인은 대기업인 방직공장에서 일했으며, 병에 걸린 남편은 정성껏 살림을 책임지는 이 사례는 전체 사례 중에서도 매우 예외적이

었다. 다른 또 한 사례인 사례 1-7의 경우도 남편이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 경우였는데, 남편은 허리가 아파 일찍 퇴직하고 청소와 빨래는 맡아서 했는데, 부엌일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한다. 위의 두 사례는 맞벌이 가구로 시작했으나 남편의 질병으로 여성이 실질적인 생계부양자가 되면서 남편이 불가피하게 가사노동에 참여하게 된 경우들이다.

그런데 위의 두 사례를 제외하면 전통적 성별분업 시기에 취업여성의 '남편'이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녀를 돌보는 등 극히 제한적인 가사분담을 한 경우에도 사례 1-4는 부인이 판매직이고 남편은 공무원이라 규칙적인 출퇴근을 하는 남편이 가끔씩 아이들을 돌본 경우이고, 사례 1-11의 경우는 자녀가 장애가 있는 경우로 아이 치료를 위해 부분적으로 참여한 사례이다.

그 외의 대부분의 사례에서 남편은 가사분담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의식도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맞벌이하는 부인이 제때에 식사를 차려주지 않는 것에 대해 비난하거나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사례 1-12는 부인은 간호장교이고 남편은 직업군인이었다.

“집에 와서 설거지하고 밥하는 것도 내 일이니까, 남자는 꿈쩍도 안 했어요. 이 사람도 군인이라 거의 동시에 들어와요. 5시에 끝나면 통근 버스 타고 들어와요. 오면서 남편은 신발 벗으면서 배고파 죽겠다고 짜증만 부리지, 나는 그때 들어와서 쌀 씻고 밥하고 난리를 치는거죠……”

(사례 1-12)

이후에 부인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남편은 정확하게 자신

이 원하는 시간에 식사를 준비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 사례 여성은 가장 힘들었던 일이 남편 시집살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였다.

“직장 그만둬서 좋은게 남편이 제 시간에 밥을 먹을 수 있어서 좋다는 거예요. 딱 자기가 퇴근하면 밥이 딱 있고, 저녁에 맛있는 과일... (중략) (직장 그만두니) 남편이 제일 좋아했죠. 제 시간에 밥 준다는 것. 꼬박꼬박. 내가 그만두자 남편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자기가 6시에 퇴근을 할테니까, 10분 후에 씻고 나와서 밥을 먹을 수 있게 해달라.” (사례 1-12)

맞벌이 가구의 가정에서 가사노동과 관련하여 남편의 역할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성이 취업을 해도 전통적인 성별분업과 생계부양자로서의 남편의 역할과 위치는 공고해서 가사노동은 거의 전적으로 부인의 역할이었음을 알 수 있다.

5. 신전통적 성별분업 시기 취업여성의 남편

그렇다면 90년대 이후의 취업 여성들의 ‘남편’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급속한 산업화와 여성의식의 제고, 이전 시기 당연히 여성의 역할이라고 간주되었던 가사역할도 이제 부부 사이에 논쟁거리가 되고, 불균등하지만 가사분담이 시작된다.

1) 취업여성과 남편의 생계부양 역할: 부인의 취업 인정과 갈등

90년대 사회분위기에서 여성의 취업은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인정

되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의 전형적인 생활패턴이 형성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부인의 취업에 대해서 대부분의 남편들은 기본적으로 수용하지만 때로는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에 따라 부부 사이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1) 안정된 생활과 맞벌이의 적극적 수용

이 시기 남편들은 부인의 취업을 여러 측면에서 수용한다. 부인이 학습지 교사이고 남편이 회사원인 사례 2-2는 결혼 초기부터 안정된 기반 마련을 위해 맞벌이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예에 저희 남편은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그렇게 넉넉한 환경에서 자란, 그 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넉넉한 환경에서 자란 스타일이 아니라 빨리빨리 서로 모아가지고 (기반을 잡고 싶다) 빨리 일어서자... 그러니까 제가 일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밀고...” (사례 2-2)

넉넉하지 않은 환경에서 시작해 적극적으로 맞벌이를 하는 이 사례의 경우 생계부양 책임을 부인과 남편이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같은 회사에서 부인이 직장 상사로 있으면서 남편을 만나게 된 경우인 사례 2-3의 경우에도 부인의 취업에 대해 남편은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양상이다.

“제가 (직장) 4년차쯤 되었을 때 남편이 신입 사원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남편이 우리 팀 수습이 되어서 제가 교육도 시키고 했는데... 남편은 시골에서 올라왔고 고등학교 때까지 시골에서 다녔고, 신입이었고, 돈도 없고, 서울에 아는 사람도 없고... 남편은 전적으로 지원해줘요” (사례 2-3)

이 사례의 경우 부인의 소득이 남편보다 조금 많은 경우이고, 함께 생활을 위해 지출하는 상황이지만 저금을 할 정도로 넉넉하지는 않다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생계부양 부담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경제적 소유권은 여전히 남편에게 집중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부인과 남편이 연구원인 사례 2-4의 경우에 부인은 재산이 전부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그러니까 남편 사고방식이 전 그래도 개방적이고 합리적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런 순간에는 옛날의 권위적인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사례 2-4)

한편 부인의 취업을 인정하고 생계부양 역할을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계속적으로 갈등하는 사례들도 여전히 발견된다. 사례 2-1은 부인은 방송작가이고 남편은 방송국 PD이며 시부모가 경제력을 갖춘 고학력의 안정된 맞벌이 가구이다.

“리버럴한 구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보수적인 마음이 약간 도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 한편에는… 그리고 엄마에 대해서 자기 엄마가 자기 어릴 때 곁에 있어주지 못한 상실감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내가 일하는게 좋다. 내가 잘 도와야지’ 하는 한편으로 또 ‘아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그래서 (일을 많이 하는 아내에 대해) 남편 입장에서는 ‘너도 힘들고 식구들도 다 힘든 선택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 남편 입장이에요.” (사례 2-1)

또 부부가 다 치과의사인 전문직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부인의 취업활동은 당연히 받아들이지만, 취업을 넘어서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남편은 시종일관 불만이 많았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된 사례이다.

“(부인이 활동이 많은 것에 대해서)… 이혼하자는 얘기는 결혼 내내 남편이 더 많이 했고 ‘이렇게 사느니 이혼하는게 낫겠다’라든지 ‘그 일을 할려면 나랑 이혼하자’ 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죠.” (사례 2-5)

이상의 사례들은 이전 시기에 비해 부인의 취업 활동을 인정하고 생계부양 역할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소유권은 여전히 남편에게 있거나 안정된 생활기반을 누리면서도 부인의 취업 활동에 대해 종종 비난하거나 가사분담을 둘러싸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 생계부양 역할에 실패한 남편들: ‘남성다움’과 사업 실패의 변주

맞벌이 가구의 경우 1시기에도 많이 나타난 것처럼 부인은 지속적인 취업으로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 남편은 실업, 사업 실패 등으로 실질적인 생계부양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는 사례들도 여전히 많이 발견된다.

사례 2-8의 경우 부인은 결혼 전부터 여러 취업경험을 하다 백화점 판매직원으로 있을 때 결혼했고 현재는 장기적으로 계약직 근무를 하고 있지만, 남편은 끊임없이 사업에 도전하고 실패한 사례이다. 부인도 처음에는 남편의 사업 도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남자가 하겠다는데 높이 샀죠. 직장생활을 과감하게 그만두고 자기가

사업을 하겠다. 그랬을 때는 아- 여자는 남편의 뒷바라지를 해줘야 된다는 것. 그게 인제 어렸을 때부터 인제 그게 머리에 박혀 있어서 그럴거예요. 여자는 무조건 남편을 도와줘야 한다. 남편의 말을 무조건 존중해야 한다...” (사례 2-8)

그러나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빚만 늘어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게 되자 후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례의 부인은 자신이 취업을 하지 않고 주부였다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반복하였다.

“결혼하자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첫째 이유가 지금도 후회를 하지만 직장을 가졌기 때문에 남편이 쉽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나.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집에서 주부로서만 역할을 했다면 남편이 감히 사업 생각을 못했을 거라구요. 그때 당시 뭐 큰 자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거의 그때부터 가정을 떠맡기 시작했죠.” (사례 2-8)

그래서 과감하게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데리고 시댁이 있는 대구로 내려가 사는 등의 시도를 해보았으나 상황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때 많이 힘들었어요. 직장생활은 저한테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좋았는데… (중략) 주변에서 이혼 얘기가 나올 정도였어요. 이 정도로 방치할 경우에는… 생활비 전혀 안하고, 기본으로 뭘 해주질 않으니까. 빚은 빚대로 쳐주니까. 빚은 또 제가 갚아야 했고, 안 갚을 수 없는 돈. 그러니까 친척 돈은 갚아야 되잖아요.” (사례 2-8)

실질적인 생계부양 역할을 떠맡게 된 이 사례 여성은 이후 생활이 ‘답답하고 정신병이 올 것 같은’ 상황이었다고 이야기하며 그 대

신 직장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다는 이야기를 반복한다. 재취업을 하고 다시 생계를 책임지며, 아이가 클 때까지 기다렸으나 상황은 좋아지지 않고 결국 이혼하게 된다.

“여전히 빚쟁이는 찾아오고, 몸도 마음도 지칠대로 지쳤고… 그 생활이 갑자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매일 밤 싸우다시피 했죠. 이혼을 해달라고, 다 필요 없다고… 위자료도 필요 없고 다 필요없다… 물론 아이는 제가 데리고 나왔어요.” (사례 2-8)

그러나 이혼했다고 해서 빚에서 자유로워진 것은 아니다. 남편의 빚보증을 썼기 때문에 이혼한 이후에도 여전히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또 다른 사례 여성의 경우 남편은 술만 마시고 무직으로 생계부양 책임을 방기한 경우이다. 결혼 초에는 남편과 세탁소를 하기도 했으나 그만두고 나서 남편은 무직자로 지냈고 자신은 식당일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여성의 경우에 경제적 부양역할에 대한 원망보다는 자녀관계에서 아버지가 돈을 못 벌 경우 정서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애들한테는 아빠가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 오는 것, 적게 벌어도 아빠가 돈을 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좋은데, 아빠가 집에 있다는 것 자체가 싫은거죠. 나부터도 그랬고… 애가 견디다가, 자기 아빠가 직업이 없고, 술 마시는게 애들한테는 좋지 않았겠죠. 중학교 때 그래서 나왔어요.” (사례 2-7)

중학생 아들이 가출하고 가정이 혼란해지는 가운데서도 남편의 음주는 멈추지 않았고 결국 질병으로 사별하게 된다. 부인은 남편과

사별한 후 간병인 자격증을 따서 현재는 간병인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인은 부양역할을 하지 못해 존경받지 못한 남편에 대해 반복적으로 연민의 감정을 표현하였다.

“어떤 면에서는 불쌍한 사람이죠.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그렇게 있었다는 게. 조금만 더 가족을 부양했으면 존경받는 아빠가 되었을텐데. (중략) 정신적으로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애들한테는 그게 정서불안까지도 오는 것 같아요.” (사례 2-7)

생계부양 역할을 하지 못하는 남성들의 경우 가족 내에서 자신의 자리는 없다. 전통적인 남성의 가부장적 권위가 아직 흔들리지 않고 있던 이전 시기에 맞벌이 가구의 많은 남성들이 생계부양 역할을 하지 못하였지만 그래도 가정의 권위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90년대 이후 생계부양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남성의 위치는 훨씬 불안정하다. 부인은 이혼을 요구하고 자녀는 아버지를 무시하고 소원해진다. 남성들은 자신들의 불안한 위치를 한꺼번에 회복하기 위해 소위 ‘사업’에 도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규모와 상관없이 많은 경우 자영업 규모의 사업은 실패로 끝나고 경제적 상황은 더욱 불안정해진다. 사업 실패는 감당할 수 없는 빚과 남편의 음주, 그리고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사례 2-7의 부인의 진술처럼 ‘내가 주부였다면’ 남편이 사업에 도전하지 않고 꾸준하게 경제생활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탄식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상황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남성들의 생계부양 역할에 대한 책임감과 강박이 생계부양자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흔드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I 시기에 이어 II 시기에든 여전히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다.

2) 가사 분담 유형과 특징: 생색을 내는 가사분담

최근의 여러 조사와 통계 결과가 보여주듯이 우리나라 가구에서 가사분담은 여전히 불균등하다. 그러나 이전 시기와는 달리 맞벌이 가구 내에서 가사분담은 부부 간의 주요 논쟁거리로 부각된 것만은 분명하다. 앞선 시기와 마찬가지로 맞벌이 가구 대부분은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 해결을 위해 친정과 시댁가족과 함께 거주하거나 가까운 거리에 살면서 전적인 지원을 받는다. 따라서 핵가족으로 살고 있어도 내용적으로는 확대가족의 형태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가사분담의 문제에서 남편의 역할을 여전히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는 않는다.

<표 4> II 시기 맞벌이 가구 남편의 가사참여 유형

사례	본인 직업	남편직업	양육해결 방식	가사참여 유형	참여 정도	분담내용
2-1	방송작가	방송국 PD	친정, 친척	참여형	적극 참여	자녀, 청소, 빨래, 장보기
2-2	학습지 교사	회사원	시어머니	회피형	조금 참여	자녀돌보기
2-3	관리직	회사원	친정어머니	회피형	조금 참여	자녀돌보기
2-4	연구원	연구원	친정어머니	참여형	부분 참여	청소, 가사노동최소화
2-5	치과 의사	치과의사	가사도우미	회피형	조금 참여	자녀돌보기
2-6	텔레마케터	자영업	친정어머니	회피형	조금 참여	자녀돌보기, 가사노동최소화
2-7	식당 종사자	무직	시댁	불가피형	조금 참여	자녀돌보기
2-8	판매직	자영업	친정, 시댁	거부형	전혀 안함	
2-9	IT 관리직	회사원	친정	참여형	부분 참여	자녀돌보기, 가사노동최소화

이전 시기와 달라진 점을 찾는다면 절대적 시간이 적더라도 남편들이 조금씩이라도 가사노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며, 또한 분담 내용에서도 자녀 돌보기 외에 청소, 빨래, 장보기 등 분담 활동 내용이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아 시대보다는 친정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더 많아졌는데, 이로 인해 장모와 사위와의 갈등 관계가 드러나는 경우도 많아진다.

(1) 가사노동을 함께 하는 남편들 그리고 새로운 갈등

사례 2-1은 첫 아이 하나일 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이를 친정에 데려다 주고, 주말에 데리고 왔다가 월요일 아침에 다시 친정에 부탁하는 방식으로 하다가, 둘째 아이가 생기고는 친정 가까이에 거주하면서 양육과 가사의 대부분을 해결하고 있다. 남편은 미국에서 유학생생활을 해서 그런지 시간만 나면 가사와 양육을 잘 도와주는 편이라고 한다.

“가정 일을 많이 도와주는 스타일이예요. 오히려 저보다 많이 하는 부분도 있어요. 집안일도 꽤 잘하는 편이어서 청소나 빨래나 이런 것도 잘 돕고 장보는 것도 이제 저는 운전을 못해요. 이상하게 운전 못해가지고 남편이 장을 왜냐면 큰 짐이 많다 보니까...” (사례 2-1)

그런데 가사를 열심히 하는 남편이 친정 가까이에 거주하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담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친정 가까이로 오고 나서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남편이 엄마

는 엄마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근데 남편이 불만을 터트리는 스타일이 아니예요. 이렇게 얼핏얼핏 얘기하기는 해도... 엄마는 엄마의 그게 강한 분이다 보니까... '--하지 마라' '머리 그렇게 하지말고 이렇게 잘라줘라' '장난감 그거 사주지 마' 라든가 이런 거가 되게 스트레스 만나봐요... 거기다 얘기 봐주러 오는 사람까지 친절언니다 보니까 남편한테는 이중 삼중 자기가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사례 2-1)

그래서 그런지 남편은 여성이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부인이 일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너도 힘들고 식구들도 다 힘든 선택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지적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아 일차적인 책임은 나다'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다고 한다.

사례 2-5는 부부 모두 치과의사인 전문직으로 남편이 가사노동에도 어느 정도 참여하는 편이다.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 때 처음에는 파출부의 도움을 받으려고 해도 집안에 여자가 드나드는 것을 불편해 하셔서 도움을 받기 힘들었다고 한다. 이후 입주 가정부의 도움을 받았으나 가사로 인해 가장 갈등이 심했을 때는 부인이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다. 남편이 종종 아이를 돌보는 일이 많았는데, 남편은 도와주면서도 계속 불평하고 힘들어 했다고 한다.

"아 봐주긴 했어요. 봐주면서 계속 이제 툭툭거리고 뭐 어떤 때는 집에 갔는데 우리 집안의 그릇을 다 깨는 적도 있었고 사실... 그런 폭력적인 것도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안하지는 않는데 하면서 너무 힘들어 하고." (사례 2-5)

이 경우는 부인이 취업활동 외에 다양한 사회활동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남편이 계속 제동을 거는 문제가 반복되었고, 최근에는 이혼을 하고 친구처럼 지내고 있다고 한다.

(2)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 최소화 전략

90년대 이후 맞벌이 가구에서 특징적으로 발견되는 또 하나의 측면은 가사노동의 부분적 분담과 함께 가사노동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취업여성들은 친정어머니나 시댁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가사노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 그렇다고 해서 남편의 공평한 분담을 요구하기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한다.

“신랑이 마음은 있을텐데. 바쁘니깐, 저희 신랑도 바쁘니깐. 저도 직장생활 하니깐 알아요. 정말 집에 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거든요. 애가 이쁘니깐 힘들어도 목욕시키고 그런거지. 저기 더러운 거 있어도, 그냥 냅둬요. 신랑도 똑같은 저 입장일테니깐 안 도와주는 것 가지고 뭐라고 못하겠더라고요.” (사례 2-9)

이렇게 소극적인 남편의 가사분담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취업여성들이 가사일이 힘들다고 느끼는 것은 아이가 생기면서부터이다. 따라서 처음에는 비교적 분담을 잘 했지만 가사분담의 비율이 달라지는 것을 느낀다고 한다.

“육아문제 생기면서부터는 가사노동이 50대 50이 아니고, 육아까지 친다면 거의 70대 30, 80대 20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중략) (남편의 육아참여에 대해) 아 없어요! 없어! 주말에만. 주말에만 봐주는데 그것도 공동육아가 아니고 그러니깐 뭐라 그래야 되지? 같이 있으면 안 봐주는거죠, 신랑이. 그래서 신랑은 제가 일부러 외출을 해요. 안 그러면 제 시간을 못 쓰겠더라고요. 일부러 외출을 해서 내 시간을 쓰고 그 동안은 봐주죠.” (사례 2-9)

육아를 지원받고는 있지만 여전히 부담이 큰 육아문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취업여성들은 남편의 참여를 독려하기 보다는 가사노동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내가 1년 동안(육아휴직 기간) 있는 동안 진짜 분석을 많이 해봤어요. 일단 육아가 많이 소요되고, 청소는… 기본적으로 청결만 유지하면 사실 되고, 빨래는 세탁기가 해서 널기만 하면 되고, 설거지는 식기세척기가 하면 되고, 막 이런 거 요리가 사실 문제인데, 일을 나누고, 육아는 내가 나오면 엄마가 해주실거고, 설거지? 식기세척기를 샀어요… 간소화시켰죠. 그렇게 다 간소화시켰죠. 어떡해요.” (사례 2-9)

남편과 어느 정도 부담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면 일을 줄이려고 노력한다. 혹은 남편과의 가사분담이 아니라 부인-친정어머니 또는 시어머니-남편이라는 삼각 부담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저희는 좀 부담이 되어 있어요. 청소랑 이런 거는 남편이 주로 다 하고요. 먹는 거 설거지 이런 거는 주로 제가 하구요. 빨래는 저희 엄마가 주로 하시구요. 엄마랑 같이 안 살 때도 제가 하기도 하고 남편이 하기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다림질은 다 세탁소 보내고요.” (사례 2-4)

“직장도 다니고 집안일도 잘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하는 것 같아요. 결혼했을 때는 오히려 제가 살림같은 거 못하고 그래도 넘어 갔는데… 좀 짜증을 내더라구요. 정리정돈을 잘 못해요. 음식도 잘 못하고, 청소 빨래 같은 거는 제가 했는데 식사 같은 것은 거진 친정가서 먹고 왔었어요.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밀반찬 같은 것도 엄마가 해주시면 가지고 와서 밥만 해먹고, 김치같은 것도 지금도 도와주시고.” (사례 2-6)

부인이 음식이나 청소를 잘 못해 짜증난 남편을 위해 사례 2-6의

경우에는 식사를 거의 옆에 있는 친정에 가서 해결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하는 것이다. 맞벌이 부부가 균등하게 생계부양 역할을 하고 가사분담을 하는 모습은 아직도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이 이 시기가 되면 남편은 부인의 취업을 인정하는 분위기이고 가사노동에 대한 참여도 약간 늘어난다. 그러나 가사노동을 분담하거나 일-가족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태도의 변화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남편들은 바쁘게 일하는 부인에게 지속적으로 짜증을 내거나 불평을 하고 있다. 취업여성들 역시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를 기대하지 않거나 조금만 분담하는 경우에도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남편과의 가사분담보다는 다른 대체방법을 찾는다. 가장 일반적으로 부모님의 도움을 받거나 다음으로는 가사노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최소화하는 것이다.⁴⁾

6. 맺음말

일-가족 양립은 이제 더 이상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여성의 취업이 확대되고 있고 가족생활은 남녀 모두에게 중요한 삶의 영역이다. 따라서 일-가족 양립을 위해서는 사회적 제도나 국가적 지원뿐만 아니라 가족 내의 부인과 남편의 역할 공유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60년대 산업화 이후 맞벌이 가구

4) 조주은(2009)은 중간계급 여성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들 여성들이 가사생활의 테일러리즘화라고 할 정도로 가사노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 기법과 다양한 대체용품이나 기구를 통해 이 갈등을 해결해 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를 중심으로 취업여성의 '남편'이 가족 내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양자 역할과 가사분담 참여 유형의 변화와 특성을 살펴보았다. 가장장적 전통이 강하고 남성의 생계부양자 역할에 대한 기대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의 일-가족 양립 환경 구축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남성의 역할 변화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기적으로 90년대를 기점으로 90년대 이전은 전통적인 성별분업 규범이 견고한 시기로, 90년대 이후는 여성의 취업이 확대되면서 여성의 취업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확대되고 가족 내 관계의 변화도 진행되는 신전통적 성별분업 시기로 구분해 살펴보았다. 전통적 성별분업 규범이 견고하던 90년대 이전 맞벌이 가구의 가정에서 가사노동과 관련하여 남편의 역할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성이 취업을 해도 전통적인 성별분업 체계 내에서 남편의 역할과 위치는 공고했고 가사노동은 거의 전적으로 부인의 역할이었다. 오히려 주목되는 현상은 '생계부양자'로서의 남편의 역할이다. 특히 하층의 생계형 맞벌이 가구의 남편들은 단지 직업지위가 낮은데서 오는 생계부양의 취약성뿐만 아니라, 잦은 사업 실패 그리고 질병 등으로 실제로는 생계부양자라기 보다는 생계를 아내에게 의존하는 양상을 보인다. 부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취업을 지속하면서 생계부양의 역할을 지속하는 반면에 남편들의 생계부양 역할은 훨씬 더 가변적이고 불안정한 것이다. 규모와 상관없이 사업에 도전한다는 것은 생계부양자로서의 남성의 역할과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는 있지만, 연구 사례 대부분의 경우에서 남편의 사업 도전은 실패하고 감당하기 힘든 부채와 건강 악화로 귀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많은 경우 취업여성 '남편'들의 생계부양 역할은 허상이지만, 생계부양자로서의 권위

는 아직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시기이다.

90년대 이후 신전통적 성별분업 시기가 되면 남편들은 부인의 취업을 당연시하고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며, 가사분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참여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남편의 가사분담의 참여 정도는 한두 사례를 제외하고는 극히 적은 부분만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대부분의 부인들이 함께 취업생활을 하면서도 가사노동을 수행하지 않는 남편에 대해 큰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남편의 가사분담 참여보다는 가사노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가사노동을 대체하는 기계를 구입하거나 상품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분적 대체를 통해 실제적이고 일상적인 해결은 어렵고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한 갈등은 늘어난다. 한편 이 시기에 생계부양 역할을 하지 못하는 남성들의 경우 가족 내에서 자신의 자리는 없다. 전통적인 남성의 가부장적 권위가 아직 흔들리지 않고 있던 이전 시기에 맞벌이 가구의 많은 남성들이 생계부양 역할을 하지 못하였지만, 그래도 가장의 권위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90년대 이후 생계부양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남성의 위치는 훨씬 불안정하다. 부인은 이혼을 요구하고, 자녀는 아버지를 무시하고 소원해진다. 남편들의 위치는 가사분담 참여 역할보다는 생계부양자 역할의 수행 여부에 따라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 시기에 걸쳐 맞벌이 가구에서 발견되는 것은 가사와 자녀양육에 있어 양가 부모님과 친족들의 지원 체계이다. I 시기에 시댁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 많았다면, 90년대 이후에는 친정어머니의 도움이 가사분담의 해결구조를 구성하는데 있어 더욱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우리 사회에서 일-가족 갈등이 전면적

으로 드러나지 않고, 가사분담을 둘러싼 부부간의 갈등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 일-가족 갈등의 양상은 이같은 부모나 친족 지원체계가 약화되면서 어떻게 드러날지 주목해보아야 할 것이며, 아울러 남편의 생계부양 역할에 대한 강력한 기대와 가족 내 평등한 관계의 구축이라는 다소 배치되는 요구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 것인지 역시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이수 엮음(2009), 『일·가족·젠더: 한국의 산업화와 일-가족 딜레마』, 파주: 한울아카데미.
- 김혜경(2009), “일-가족 접합의 역사와 친족관계의 변화”, 『일·가족·젠더: 한국의 산업화와 일-가족 딜레마』, 강이수 엮음, 파주: 한울아카데미, 129-171쪽.
- 마경희(2009), “맞벌이가구 젠더체제 유형과 여성의 일-삶 경험”, 『일·가족·젠더: 한국의 산업화와 일-가족 딜레마』, 파주: 한울아카데미, 330-364쪽.
- 박기남(2009), “전문직 여성의 갈등과 좌절, 그리고 적응전략: 198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일·가족·젠더: 한국의 산업화와 일-가족 딜레마』, 강이수 엮음, 파주: 한울아카데미, 172-29쪽.
- 박홍주·이은아(2004), “기혼여성노동자의 일·가족 경험과 직업의식”,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제20권 2호, 141-178쪽.
- 손문금(2005), “맞벌이부부 여성의 이중부담과 시간의 특성: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대학원 사회학전공 박사학위 논문.
- 안상수·김이선·김금미(2009), 『성평등 실천 국민실태조사 및 장애요인 연구(I): 사적 생활영역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연구보고서-21.
- 윤홍식·조막래(2007), “남성일인생계부양자가구와 이인생계부양자가구의 소득특성과 빈곤실태”, 한국가족학회, 『가족과 문화』, 제19집 4호, 131-162쪽.
- 장지연·이정우·최은영·김지경(2005), 『일·가족 양립체계의 선진

- 국 동향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정책연구 2005-01.
- 조성은(1998),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에 관한 연구: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박사학위 논문.
- 조주은(2009), “중간계급 유배우 취업여성의 압축적 시간경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박사학위 논문.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년도.
- Crompton, R., S. Lewis, and C. Lyonette(eds.)(2007), “Introduction: the Unravelling of the ‘Male Breadwinner’ Model - and Some of its Consequences”, in *Women, Men, Work and Family in Europe*, ed. R. Crompton, S. Lewis, and C. Lyonett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pp. 1-16.
- Falkenberg, L., and M. Monachello(1990), “Dual-Career and Dual Income Families: Do they have Different Needs?”, *Journal of Business Ethics*, 9(4-5), pp. 339-351.
- Gerson, K.(2010), *The Unfinished Revolution: How a New Generation is Reshaping Family, Work, and Gender in America*,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Glucksmann, M. A.(1995), “Why ‘Work’? Gender and the ‘Total Social Organization of Labour’”, *Gender, Work and Organization*, 2(2), pp. 63-75.
- Hareven, T. K.(1982), *Family Time and Industrial Tim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mily and Work in a New England Industrial Communit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chschild, A. R.(1997), *Time Bind: When Work Becomes Home and Home Becomes Work*, New York: Metropolitan Books.
- Houston, D.(2005), *Work-life Balance in the 21st Century*,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Jenkins, S.(2004), *Gender, Place and the Labour Market*, Aldershot: Ashgate Publishing.
- Meisenbach, R. J.(2009), “The Female Breadwinner: Phenomenological Experience and Gendered Identity in Work/Family Spaces”, *Sex Roles*, 62(1-2), pp. 2-19.
- Sainsbury, D.(ed.)(1999), *Gender and Welfare State Regim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ecombe, W.(1986), “Patriarchy stabilized: The construction of the male breadwinner norm in nineteenth-century Britain”, *Social History*, Vol. 11 pp. 3-70.
- Williams, J.(2000), *Unbending Gender: Why Family and Work Conflict and What to Do About i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원고접수: 2011. 04. 28

원고수정: 2011. 05. 26

게재확정: 2011. 06. 06

〈Abstract〉

The Changes of Husband's Attitudes to Work—Family Problems in Dual Earner Families

Yi-Soo Kang

This paper analyzed husbands' attitudes of employed women to the breadwinning role, domestic work, and the sexual division of labor in dual-earner families from the 1960's Korean industrialization to present. This period is subdivided into two phases as follows. The first phase, 1960-1990, was characterized by the rigid sexual division of labor, negative attitudes towards women's employment, and strong authority in financial decision-making belonging to husbands. Many husbands earned less than their wife in low strata families. But they did not perform any domestic work and they kept their authority concerning financial and family decision-making. The second phase, 1990-present, is characterized by positive attitudes towards women's employment and the weakening of authority of husbands concerning financial decision-making. But there still remained an unequal sharing of domestic work. So the sexual division of labor is the only area where attitudes remained unchanged.

KEY WORDS: dual earner family, breadwinning role, sexual division of labor, domestic work, work-family conflict